

어려운 일을 맡아도 모두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인과법을 잘 푸는 묘법입니다.



- 직지사 주지 성승 스님

제854호 2011년 9월 21일 수요일 (음력 8월 24일 · 불기 2555년 · 주간)

말 뿐이다

사회 부조리에 대한 불교계의 대응이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 강정마을은 결국 경찰 진압이 투입됐고, 어청수 전 경찰청장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두 사안 모두 불교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사안이라 실망감은 더욱 크다.

불교계는 두 사안 모두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의 변화를 강하게 촉구하는 태도를 보였다. 불교환경연대는 5대 종단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종교환경회의'와 함께 제주도 해군기지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7월 25일 발표했다. 불교인 권위회도 제주 강정마을 사태 등 사회현안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8월 3일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제주 강정마을 현장에서는 불교계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일부 스님들이 강정마을을 찾기도 했지만 종단이나 단체 차원에서 공식적인 현장 참여와 연대는 실종됐다.

성명서로 그만인 불교계 이웃종교와 확연히 비교돼 행동 없는 구호는 '그만'

반면 천주교 신부들은 강정마을 주민들과 적극 결합하면서 함께 투쟁했다. 경찰 진압에도 강정마을 현장에는 25명 가량의 천주교 신부들이 자리를 지키고 항의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강정마을 사태가 사회적 연대의 문제였다면 어청수 전 경찰청장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은 불교계로서는 보다 직접적인 현안이었다. 그는 경찰청장 재직 시절 종교편향 문제로 범불교대 회의의 원인을 제공한 인물이다.

내경 소식이 전해지자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8월 9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환경위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조정과 화합 능력을 갖추어 한다"며 환경·산림 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어청수 전 청장의 임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불교환경연대는 한발 더 나아가 어청수 전 청장의 임명을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불교계는 성명서를 발표했을 뿐 구체적인 대응활동을 보

여주지 못 했다.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이 도화선이 됐던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자성과 쇄신 결사' 때와는 대조적이다. 당시 불교계는 수많은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불교계의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의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시작하니 구체적인 실천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교가 사회를 이끌지 못하는 것이다. 사회문제도 불교의 문제라는 인식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국 전 조계종 총무원장 총재 특보도 "자성과 쇄신 결사에는 적극적이면서 진정으로 종교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 약자의 문제에는 소홀했다. 현장을 찾아가 그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성명서만 내고 활동이 없으면 진정성만 의심받을 뿐이다"고 말했다.

반면 불교시민사회와 종단에서는 내부 역량과 현실적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불교환경연대 김두환 국장은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문제제기가 필요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직 정비를 통해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계종 사회부 공승관 팀장은 "모든 사안에 종단이 직접 대응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도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관심을 갖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 팀장은 "사회적 사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능인향당
능인향당의 침향전문점
침향갤러리
침향복합물 · 침향염주 · 침향선향
갤러리 02-738-6777 (조계사 맞은편)
문서 02-3663-6777 www.nihwa.com

신상품 LED인등·전구
찬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별처럼 빛나는 후배사랑

동국대 연극학부 출신 동문들이 뜻을 모아 '후배사랑 멘토 장학기금'을 조성했다. 동국대(총장 김희욱)는 9월 15일 동국대에서 연극학부 동문회(회장 이효정)와 멘토 장학금 약정식을 했다. 장학금 조성에는 이덕화 강석우 임예진 이경규 이효정 홍학표 이경실 김상중 김유석 최준용 최유라 남성진 홍진경 채정안 이정재 최정원 소유진 류시원 김수로 등 20여 동문이 동참했다. 이들 연예인(멘토)들은 직접 오디션을 통해 학생(멘티)과 1:1 결연을 맺은 후 한 학기당 250만원의 장학금을 제공하는 등 멘토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글=조동섭 기자
사진=박재현 기자

클린턴도 간화선을 환영했다

"남편이 꾸짖을 적에도 화두를 챙기고, 마누라가 시비를 걸 때는 처사가 화두를 들고, 이런 생활을 하면 좋은 가정이 되고 마침내 세계 평화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대구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이 뉴욕 시민들 앞에서 화두 참선을 통한 세계평화를 이루는 길에 대한 말을 쏟아냈다. 동화사와 해운정사가 주최하고 뉴욕불교사원연합회,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가 주관한 '간화선 세계평화 대법회'가 9월 15일(현지 시각)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열렸다.

진제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한국과 미국에서 1500여 사부대중이 리버사이드 교회를 가득 채웠다. 미국인들도 낯선 한국 스님의 법문에 온 신경을 집중해 경청했다. 1930년



진제 스님과 불자들이 9·11 추모공원을 돌며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법문에 앞서 로버트 버스웰 UCLA 교수는 간화선에 대해 청중들에게 직접 소개했다.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간화선 수행자들은 고대 선사들의 수수께끼 같은 화두를 탐구한다."

이날 법회에는 또 빌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과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이 축전을 보내왔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뉴욕은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교류하는 곳으로 사랑받아 왔다. 진제 스님의 방문으로 여러 사람들을 이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은 "뉴욕은 다양성이 큰 자산이다. 종교와 인종의 다양성을 인정해 화합하는 것이 뉴욕이다. 진제 스님의 역사적인 방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고 전했다.

법회에는 올해 초 대구 동화사를 방문해 진제 스님과 종교 평화에 대한 대화를 나눴던 폴 니티 유니온 신

학대 교수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진제 스님은 16일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간화선 특강과 실참을 지도했으며 풀니터 교수와 종교간 평화대화를 진행했다.

관련법문 16~17면 **차상장보**
뉴욕=박기범 기자

854호 CONTENTS

- 선암사 문화제 7점 행방요연 2
- 스님들 아이패드 쓰면 안되나 2
- 대장경 특별전 3
- 인터뷰 5
- 美 햄프셔대 교수 해민 스님
- 특집·간화선 평화대법회 16·17
- 진제 스님 리버사이드 교회서 법문

알림

새 가을, 감성을 일깨우는 새 연재

읽을거리가 더 풍성해졌습니다.

#지흥 스님의 한평생 산다는 것은

병원은 고통이 넘치는 곳입니다. 병고의 지옥고를 벗어나 새 삶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는대로 한 번의 호흡을 끝으로 인생을 끝내기도 합니다. 서울아산병원 법당에서 환우들의 아픔을 보듬으며 약사여래행을 실천하는 지흥 스님이 가슴 뭉클한 감동의 사연을 전합니다.



#정은 스님의 사색과 명상

인간의 사유하는 동물이다. 그러나 사유하기 때문에 걱정과 사사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사들은 방 하착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조계종단과 동국대에서 다년간 강의와 왕성한 저술 활동을 펼쳐 온 정은 스님이 여러분을 선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고영섭 교수의 <삼국유사> 인문학 유해

<삼국유사>를 야사(野史)로만 알고 계신다고요? <삼국유사>는 우리 민족문화대백과사전입니다. 한민족의 정신사를 비롯해 한국문명사를 집대성한 우리 민족의 수트리입니다. 역사서로만 만났던 <삼국유사>를 동국대 고영섭 교수의 신심 가득한 시각과 감성 가득한 기쁨으로 만나봅니다.



#이우상 교수의 숲에는 갈등이 없다

숲에는 수많은 초목이 함께 살아갑니다. 서로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하늘을 보며 살지만 아무것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숲에서 삶의 지혜를 배워보세요.



#김경집 교수의 서울 불교문화를 찾아서

언제가 한번쯤은 지났을 법한 그 곳, 어쩌면 알듯 말듯한 그 곳, 그러나 누가 몰으면 우물쭈물하게 되는 서울의 숨은 이야기들을 진각대 김경집 교수가 재미있게 풀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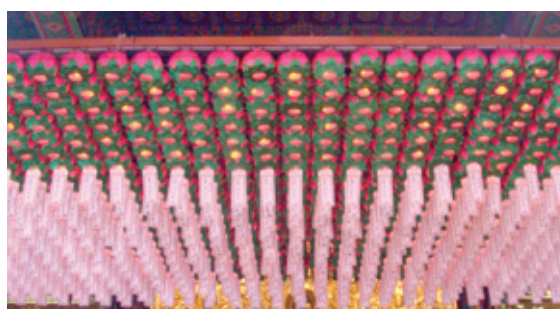
찬덕불교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전선(케이블) -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연등 자동 승강장치 - 안산 월강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 흥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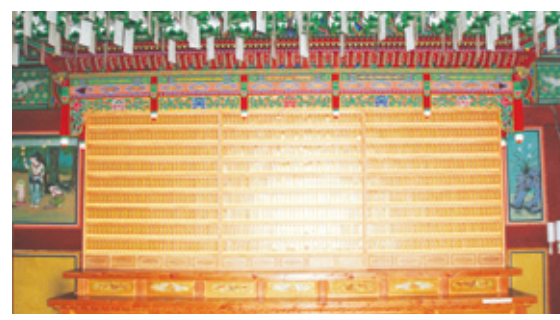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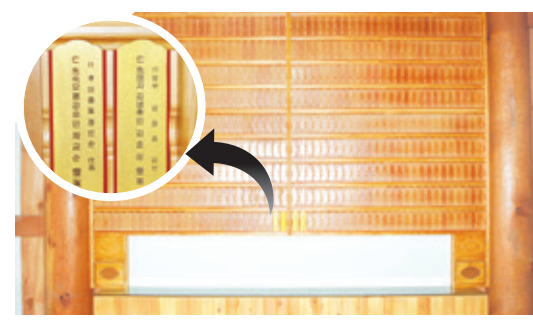
윤장대 인등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아름다운 등



팔각점등영가등



극락왕생 만월영가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만 월 등



중 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인등용 LED전구)